

이재명 '원팀' 퍼즐 맞추고 정책 차별화 박차

복지·부동산 등 정책 전환 요구
중부세 핀셋 수술 당 측면 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공약 발표
이낙연·정세균 본역 선대위 활동

'진보 진영 결집'의 퍼즐을 완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엔 반성과 통합 모드를 통해 진영의 결집을 도모해왔다면, 새해부터는 유능한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 초년생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28일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살률을 몇 년째 1등 하는지를 모른다"면서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결국 복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로 출산율, 자살률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이 후보가 당부한 종합부동산세(중부세)의 '핀셋' 수술을 위해서는 당이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부세에 대해 "세상에 완전히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적대로 이직이나 취업 등 일시적 2주택, 중중 명의 가액이나 협동조합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의 직속 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토부유세 도입과 기부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한 향후 5년간 250만 가구 공

급, 부동산 개발 사업 불로소득 환수 규정 강화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 경제계와의 대화 등 일정을 늘려가면서 경제 행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학부생에 한해 소득에 관계 없이 학자금 대출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로스쿨 등 대학원생의 대출금도 넓힌다는 게 요지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자의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네거티브 공방전'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인물 구도로 전환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선대위 내부에서도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 등에 대해선 등에 대해선 역풍을 우려해 급급적 직접적인 공세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원 팀'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날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으로 등판한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공개 활동의 보폭을 점점 넓힐 예정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가 며칠 전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까지 나서면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내년도 연봉 2억4천만원...인상분 1.4%는 반납한다

공무원 보수 1.4% 인상

정무직·고위직 사실상 동결

병장 월급 67만6천100원

내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464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865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

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520만9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부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내년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도 전년 대비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병사 월급은 11.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올랐다.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직·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우선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41.1%·윤석열 40.1%

리얼미터 조사...오차범위내 초점전

70% "가족 도덕성 후보 선택 영향"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은 결과 이 후보가 41.1%, 윤 후보가 40.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1.0%포인트였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순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64.4%), 대전·충청·세종(46.5%)에서, 연령별로는 40대(56.4%), 50대(48.1%)에서 전체 평균 대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윤 후보는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5.7%), 서울(43.9%)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9.1%)에서 전체 평균 대비 지지율

이 높게 나타났다.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에는 63.4%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35.1%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 동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참여해야 한다'(48.7%),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43.4%)로 집계됐다. 후보 가족의 도덕성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엔 69.6%가 '영향을 미친다', 28.9%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윤석열(31.1%), 이재명(30.7%), 안철수(3.2%), 심상정(1.8%) 후보 순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6%, 국민의힘 35.4%, 국민의당 11%, 정의당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탈당자 일괄 복당...공천 페널티도 없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사면'을 언급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선 불복,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 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도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탈당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페널티(불이익)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당원 등이 일괄 구제될 전망이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내년 초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당원 투표 일정은 오는 29~30일 열린민주당의 당원 투표가 끝난 뒤 최고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이 모두 합당 추진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 1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와 열린민주당 최고위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